

[사회]



원불교 교도들 헌화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원불교 광주·전남교구가 주최한 추모제에서 200여 명의 교도들이 헌화하고 있다. 광주민중항쟁 때 원불교에선 박관현 열사 등 4명의 신자가 희생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종이학 2만마리 접어 넘 위로

■ 5·18 27주년 이모저모

○대구시립합창단과 광주시립합창단이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27주년 기념식에서 '평화의 하모니'를 함께 연주, 잔잔한 감동의 결실.

검은색 드레스와 정장을 차려입은 합동합창단은 '마른 잎 다시 살아나'를 열창해 기념식 참석자들로부터 호응.

대구시립합창단 소프라노 이은혜(여·31)씨는

"5·18이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운동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와서 묘역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울며,

○대선이 열리는 해답계 5·18 민중항쟁 제27주년 기념식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각 정당 대표와 대선주자들이 총집결.

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 5년간 기념식에 모두 참석했으며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중도개혁 통합신당 김한길 대표, 민주당 박상천 대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국민중심당 심대복 대표 등도 참석.

특히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 한명숙 전 총리, 김희규 의원, 민생정치모임

소속 전정배 의원, 손학규 전 경기지사,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등의 모습도 보여 눈길.

○고(故) 윤상원 열사의 묘교인 살레시오 고등학교 학생 12명이 종이학 1만 마리가 든 유리상자를 들고 참배해 선배의 넋을 위로.

경신여고·광주여고·살레시오고·살레시오 여고·전대사대부고·조대여고 등 광주지역 6개 고등학교 학생들은 지난 4월18일부터 5월17일까지 한 달 동안 종이학 2만 마리를 접었는데, 나머지 1만 마리는 다음달 3일 살레시오고 교정에 세워질 윤상원 열사 동상에 바칠 예정이다.

살레시오고 총학생회장 정연태군은 "앞서가신 선배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학교생활은 물론 졸업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

○16~18일까지 광주 5·18 기념문화관에서 열린 '2007 광주국제평화포럼·동아시아 인권포럼'에 참가한 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

아·태국·일본, 필리핀, 네팔 등 50여 명의 외국인들이 기념식에 참가해 눈길.

네팔에서 온 언론인 지만 바스넷(30·Jit Man Basnet)씨는 "이곳에 와서 인권·민주주의·시민들의 정신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며 참배 소감을 피력.

○18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광주·전남 오월 대학생 한마당' 프로그램이 예산 부족과 상인들의 반발 등의 이유로 대폭 축소돼 아쉬움.

준비위원회 측은 당초 '도전 통일 골든벨' '락으로 하나 되는 우리 세상' '풍물 한마당' '동아리 한마당' '6·15 학생운동본부 출범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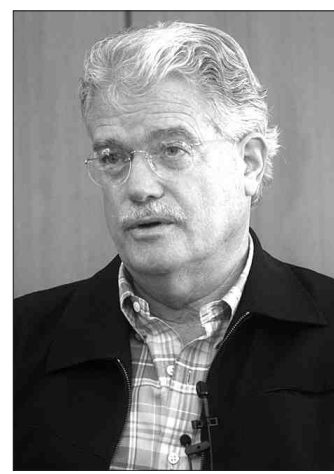
'머거리 마당'(주먹박치기·나뉘주기·우리 농산물 빨리 먹기·매주 팔리마시기) '잡어 마당'(페이스 페인팅·다트·고리 던지기) 등을 개최한다고 밝혔으나, '동아리 한마당'을 제외한 모든 행사가 취소된 것.

행사 위원장 김기범(광주교대 4년)씨는 "금남로 상인들이 '장사에 지장이 많다'며 18일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공식 요청, 취소했다"며 "5·18 행사위원회에 처음 2천만원을 요구했으나 500만원 밖에 지원되지 않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 /한현주기자 ahj@

/김어룡기자 wool@kwangju.co.kr

DJ 학술상 받은 미 커밍스 교수 "美 정·관·학계 인사들 신군부 지지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보상 받았다"

"5·18 당시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명분으로 전두환 등 독재세력을 지원하고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등 인권·민주주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습다." 18일 전남대에서 열린 '5·18 민중항쟁 27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광주항쟁과 한-미관계'로 주제 발표를 한 브루스 커밍스(63·Bruce Cumings·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는 학술대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통치하의 한국 군대는 12·12사태나 5·18 광주항쟁 등에 시민들을 진압하는데 동원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 대기업의 고문으로 채용됐으며 모두 직·간접적으로 전 정권을 지지했다고 커밍스는 주장했다.

그는 "스칼라피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의 경우, 당시 미국 인사 가운데 누구보다 빨리 한국을 찾아 전두환 체제를 사실상 지지했고, 전 정권 출범 뒤 대우 고문으로 고용돼 연간 5만 달러의 자문료를 챙겼다"고 밝혔다.

리처드 홀브룩 당시 동아대 담당 차관보, 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헤이그, 스키프 애그뉴(닉슨 정권의 부통령) 등도 같은 시기에 한

국 대기업의 고문으로 채용됐으며 모두 직·간접적으로 전 정권을 지지했다고 커밍스는 주장했다. 커밍스는 "한국전쟁의 기원" 등을 쓴 한반도 전문가로, 전남대가 올해 처음 초청한 '후학 기대주 학술상'(상금 1천만원) 수상자로 선정돼 오는 21일 상을 받는다.

그는 동아시아 관계사, 근·현대 한국사, 미국의 대외정책 등 20세기 국제사를 연구하고 있으며 12권의 저서와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종형기자 gilee@

사진=최현배기자 choi@



5·18 기록 공개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광주민중항쟁 27주년을 맞아 5·18 당시 광주시가 생산한 기록물 70권을 공개했다. '국가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18일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한 기록물은 '광주사태 사망자철' '광주사태 수습철' '광주사태 복구상환' 등이다. 이 자료에는 희생자 162명의 인적사항·사망 원인·사고 경위 등이 표 형식으로 작성돼 있다. /연말뉴스

소방훈련 사고 책임 차르 지워줄 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인사위원회에서 오늘 날짜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측은 사고 후 학생들의 심리적 충격을 막기 위해 19일 하루 휴교하기로 했다. /연말뉴스

명예훼손 댓글 방치 포털사에 손해 책임

포털 사이트 댓글 등을 통해 누군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포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김모씨가 "하위 사이트 포털 등에 퍼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며 4개 주요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론사에서 제공받은 기사를 게시해 영향력이 기사 작성자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포털이 단순한 전달자에 그쳐 기사 내용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이 아닌 사인은 어느 경우에도 침해되지 않는 사적영역이 지켜져야 하며, 인터넷서비스로 영리활동을 하는 피고들은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며 "인터넷이 여론을 좌우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매체로 자리 잡은 만큼 '불량 정보' 유통을 막아 건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김현규씨 장남 증범(광주 BBS 기자)군 장양정씨 장녀 진선양=20일(일) 낮 12시 리더스 클럽 2층 컨벤션홀. ▲김우성(전 동산조정 대표)씨 차남 용현(전남대 의대)군 명재씨 장녀 수연양=19일(토) 오후 1시 그랑사이에타워 1층 다이아몬드실. ▲이명자씨 장남 최세훈군 실재씨 장녀 수호양=20일(일) 오후 1시 탐양리조트. ▲김진경(광주시 북구청 건설과 도로계장)씨 장남 동현군 이상

배씨 장녀 소연양=19일(토) 오후 2시 에블루션웨딩컨벤션 3층. ▲심연영씨 장남 성훈군 정사균(KBS 광주방송총국 보도국)씨 장녀 소영양=27일(일) 오후 3시 KBS 신관 1층 공개홀, 피로연 19일(토) 낮 12시 섀넬호텔 3층 대연회장. 부음 ▲최재정(전남대대 명예교수)씨 별세 성안(성형외과 원장)·요안(내과원장)씨 부친상 김형원(내과원장)·윤성훈씨 부부상=발인 19일(토) 전남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220-6983

▲박영씨 별세 인주(서경대 부총장)·창주(조선대 법대 교수)·창주(산림청 정비실장)씨 부친상=발인 19일(토)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분향소. 02-3410-6914 ▲허희욱씨 별세 장해룡(한라대 사무처 실장)·해남(금호산업(주) 사무)씨 모친상=발인 18일(금)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4분향소. 02-3010-2294

Table with 2 columns: Name and Address/Phone Number. Includes names like 김현규, 김우성, 이명자, 김진경, 배씨, 심연영, 최재정, 박영, 허희욱.

Table with 2 columns: Category and Information. Includes '생활안내' (Public Transport, Buses, etc.) and '신고' (Recruitment, Exams, etc.).

산행안내 (Hiking Guide) section listing various hiking routes,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different groups like '5월 20일(일)', '5월 23일(수)', etc.

웰빙시대의 뉴-리더 (Wellness Era's New Leader) advertisement for '농산물품질관리사' (Agricultural Product Quality Management Specialist) exam, featuring '개강 6월 2일(토)' and 'A+ 현대고시학원'.

7.9 공무원 대비 (7.9 Civil Service Exam Preparation) advertisement for '무등고시학원' (Mudeung Exam Institute), highlighting '7월 9일 공무원 대비' and '6월 1일 주재'.

2007년 국가직, 지방직 시험합격= 한빛이네! (2007 National/Local Exam Success = Hanbit!) advertisement for '한빛공무원학원' (Hanbit Civil Service Exam Institute), featuring '7.9 공무원 5년 5만명 증원'.